신부님은 거짓말쟁이/ 임유경

신부님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신부님은 욕을 지껄인다

선이 뭐고 악은 뭔가요 그딴 게 중요하기나 한가요 그만하렴

괴롭단다 나를 그만 괴롭히렴

신부님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신부님은 기도를 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악에서 저를 구하소서 그만하세요

괴로워요 저를 그만 괴롭히세요

신은 신부님에게 도피처

하지만 우린 알잖아요

이곳만 아니면 된다 이곳만 아니면 된다 하지만 우린 알잖아요

늙은 조명은 피할 수 없고 분홍색 여자 팬티는 지독하고

어디든 이곳이라는걸

작가의 말

나는 그가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다. 절대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무엇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할 일은 그저 끊임없이 사랑을 속삭이며 그가 용기 내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은신처가 되어준다는 것은 고통을 대신 받겠다는 말이다. 그리고 사랑하겠다는 말이다. 사랑과 고통은 동급이다. 따라서 사랑은 절대적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가 사랑이다.